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중)

김두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삼천배를 하면서도 내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절을 통해 얻어지는 하심(下心)과 인연공덕, 업장소멸이 아니라 오로지 성철 큰스님을 뵈는 것이었다. 스님을 뵈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잃어버린 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여쭙어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삼천배를 마치고 큰스님을 뵈고 난 후 내가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한 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다. 대신 심원(心源)이라는 불명과,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예경(禮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성철 스님을 친견한 느낌은 맑고 투명하고 청량했으며 미소 띤 인자한 얼굴에서는 형형한 눈빛이 나와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위엄을 느끼게 했다. 또한 오래된 긴 했지만 너무나 정갈하고 단정한 옷매무새는 철두철미한 수도승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경심과 겸손함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었다.

기도 중에 스님께 꼭 물어보리라 다짐했던 열토당토 않던 질문들은 어느새 달아나 버렸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스님 얼굴만 쳐다본 채 서있던 나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스님의 한 마디만을 듣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스님을 뵈고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큰스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량한 기운은 내 영혼을 지배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솔직히 그동안 나의 꿈이라는 것은 이 상형의 여자를 만나 자식을 두세 명 두고,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성철 스님을 뵈고 난 후 나는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고, 평생통

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재정비하게 됐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일과기도 정진이었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께서 지도해 주신 기도법에는 삼천배 기도 말고 아비라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또한 업장을 소멸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스님을 뵈고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여론거사와 함께 아비라 기도에 참석했다.

을 하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 내 의지로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이 30분은 너무나 길었고 혹시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늦게 흘렀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쯤 죽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긴 숨을 토해내고 일어나서 3배를 하면 한 파트 기도가 끝난다.

한 파트 기도가 끝나면 25-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데 이때 능엄주를 일독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성철 스님 친견 후 평생 정진할 것 결심

'설마 죽기야' 하는 마음에 3일 밤낮 기도

내 마음 읽고 계셨던 스님 '심원'법명 주서

당시 거사들은 원통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겨울도 아닌 한 여름에 장작을 쪼개야 공기에 불을 때 가면서 기도를 했다.

처음 하는 아비라 기도에 대한 긴장감이 나를 감쌌고 뜨거운 열기는 숨을 터럭 막히게 했다. 방바닥의 열기로 바스락거렸다. 나름대로 묘책이랍시고 바스락거리는 2-3장 간 후 그 위에 덮고 자는 이불도 깔아 두껍게 만들고 그 위에서 기도했다.

사시에불과 함께 기도가 시작됐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속옷은 물론 법복까지 흠뻑 젖었고 장제합장을 한 다리는 마비되듯이 고통스럽고, 합장한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선배 도반들이 진언을 크게 외치라고 했지만, 아무리 진언

나는 능엄주 일독을 하는데도 20분이 넘게 소요되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쉬는 시간에 맞춰 능엄주 정독을 하기도 급급했다.

불현듯 "내가 이렇게 힘든 기도를 왜 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여론 거사님에 대한 원망도 일었다. 한 파트 기도가 이렇진데, 나머지 23파트를 어찌 끝낼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예상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동차 키를 여론 거사님이 보관하고 있었으니 해인사 백련암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백련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기도 온 학생도 있었고, 연세가 지긋하



그림 · 문병성

신 어른신도 계셨는데, 젊은 내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힘들어도 이번만 끝내고 가자, 설마 죽기야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백련암의 첫날 잠자리는 아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기만 했다.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자야 했고, 바닥이 뜨거워 잠도 깊이 들지 못했고, 유난히 췌는 걸 좋아하는 내 습관으로는 잘 자지도 못한다는 사실도 힘겨웠다.

둘째 날 기도가 시작됐다. 고된 원 자제로 지탱하고 있어야하는 다리는 이미 마비되어 내 다리가 아니었고, 공양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틀째 기도가 끝났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었지만, 저녁이 되니 언제 낮에 땀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땀냄새도 나지 않고 뽀송뽀송한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7번째 기도에서 드디어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프던 몸통어리가 갑자기 하나도 아프지 않으며, 기도하는 몸 상태가 아주 편안해졌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 하지 못했던 법신진언 '올 아비라 홀 캄스바하'가 술술 나오던 것이었다.

덕분에 이후 기도는 거뜰하게 마칠 수 있었고 기도를 끝낸 후 스님은 나에게 '심원'이란 법명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불명을 주면서 스님께서 "니, 아비라 기도하면서 3일째까지 육 많이 했

제? 다시는 아비라 기도 안 올라고 마음도 먹고... 그래도 니는 심원이 무슨 뜻인고 알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성철 스님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훤히 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당황스러움에 부끄러움이 느껴졌고 동시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후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5년 화제신간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일곱 번째 완성지
해조음 / 값 9,500원

서자특별공개강좌

주요내용

-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 출세시 인간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위와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 중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래출현의 비밀은 무엇인가??

● 서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 부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 대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강좌 문의
053)653-9124

전국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150만원

(4)장 소: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 횡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 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치료",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습니다.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연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i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 과정 ● 전문가과정 ● 백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구, 사암도인침술법,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명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차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5. 11. 7 일 · 화반(주 · 야간: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회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화(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로 과정까지 높아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토요일, 일요일 전문가과정 특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울: 종로 3가 16번지 고영빌딩 407호
문의: 02)747-9136. 011-307-2975

녹음테이프를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능대한 강의를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관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관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055) 384-2303 大邱支部: (053) 641-2334
龜尾支部: (054) 465-2642 慶南支部: 016-274-3170
慶北支部: (054) 553-5145